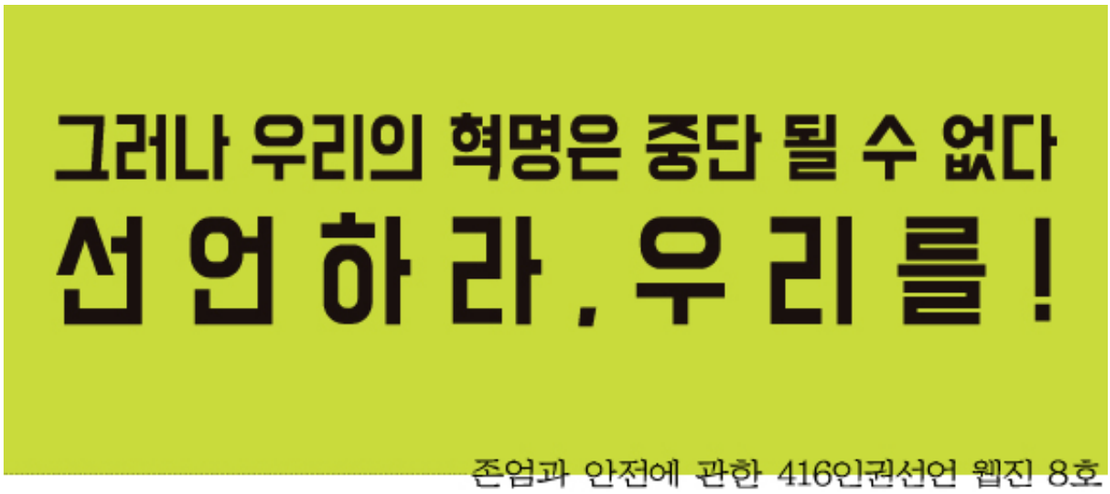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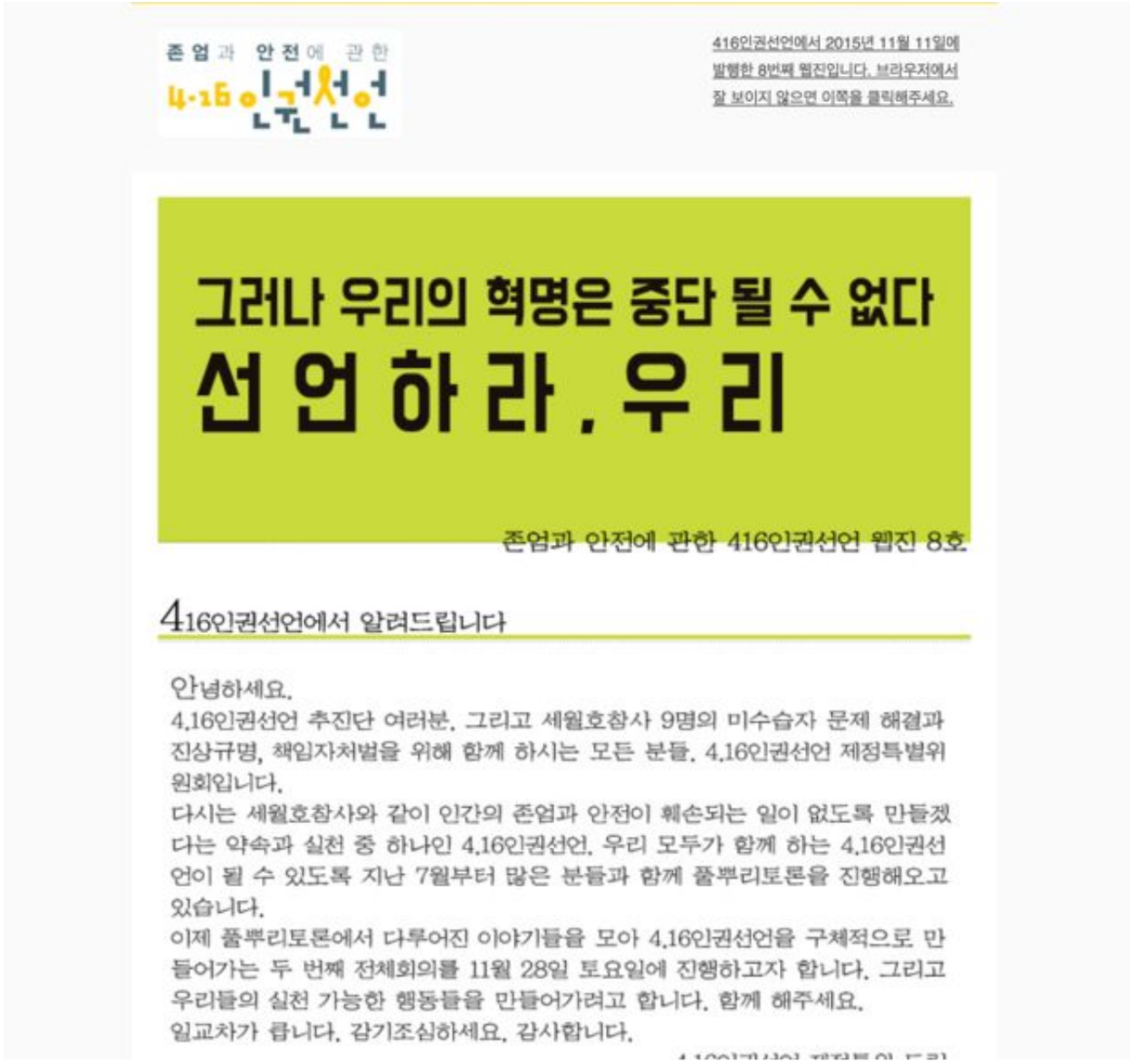
메인배너

인권선언 웹진 8호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9, 2015



***웹진 글을 읽으시려면 글 하단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416인권선언에서 2015년 11월 11일에 발행한 8번째 웹진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이쪽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혁명은 중단 될 수 없다
선 언 하 라 , 우 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웹진 8호

416인권선언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6인권선언 추진단 여러분, 그리고 세월호참사 9명의 미수습자 문제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4.16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입니다.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약속과 실천 중 하나인 4.16인권선언.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4.16인권선언이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많은 분들과 함께 풀뿌리토론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풀뿌리토론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들을 모아 4.16인권선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두 번째 전체회의를 11월 28일 토요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실천 가능한 행동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풀뿌리토론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416인권선언을 함께 하는 추진단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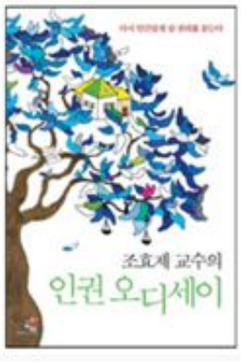
추진단 박은희님

추진단 박동호님

추진단 정경원님

추진단 박래군님

416인권선언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인권책을 소개합니다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

한권씩 소개해 드려요

저자 조효제 | 교양인

이 책은 인권, 다시 말해 '인간답게 살 권리'의 참뜻을 찾아 세계 곳곳을 탐사한 지적 오디세이의 기록이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는 투쟁 속에 지평을 넓혀 온 인권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나게 되며, 인권이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편견과 억압을 격퇴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조금 더 토론하고싶다면, 읽을거리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죽은 이의 존엄에 관하여_아사

▶[오마이뉴스]가라앉은 세월호와 우리 삶, 함께 끌어올려요_최예륜

▶[오마이뉴스]풀뿌리는 아직 기억한다, 4월 16일 세월호를... 나위

▶지난 활동일지

어텐션 플리즈

2차 전체회의를 위한 소설펀치 개설!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Copyright © 2015 4.16인권선언, All rights reserved.
4.16인권선언에서 추진단에 보내는 웹진입니다.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하단의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수신방법 설정 또는 수신거부

***웹진 글을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진행상황>
풀뿌리토론 인권교육센터 '들' 날맹님 후기http://416act.net/decl_achive/8730
풀뿌리토론 장애여성공감 서연님 후기http://416act.net/decl_achive/8724

<추진단인터뷰>
추진단인터뷰 #박은희님http://416act.net/decl_achive/8721
추진단인터뷰 #박동호님http://416act.net/decl_achive/8719
추진단인터뷰 #정경원님http://416act.net/decl_achive/8723
추진단인터뷰 #박래군님http://416act.net/decl_achive/8784

<관련 글 읽기>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죽은 이의 존엄에 관하여_아샤http://hr-oreum.net/article.php?id=3158
[오마이뉴스] 가라앉은 세월호와 우리 삶, 함께 끌어올려요_최예
륜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4954&CMPT_CD=SEARCH
[오마이뉴스] 풀뿌리는 아직 기억한다, 4월 16일 세월호를..._나
위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2371
지난 활동일지http://416act.net/decl_achive/8733

[웹진8호]풀뿌리토론후기(날맹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0, 2015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후기

인권교육센터 '들' 날맹

공감하는 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걸까

인권교육을 나가면 같은 장면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해병대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인내심을 배우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동 학대"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 반응의 차이가 곧 인권감수성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푸는 것이죠.
지난 4월 독일에서 세월호 피켓을 들고 서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에서 배가 바다에 침몰하여 300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났고, 그 이후 구조된 사람이 한명도 없다,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사고가 났는지 알고 싶다는데 국가는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 설명을 한 번에 잘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외국어로 설명하는 것에서 초래된 어려움만은 아닌 것 같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겐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구조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니 잘못 들은건가 싶어 진짜 그렇냐고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구조받을 권리'가 당연한 나라의 사람들에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보상금이나 바라는 이들로 매도된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거죠. 이렇게 다른 사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걸까 새삼스레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들' 회원들과 함께한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지난 10월에 열린 풀뿌리토론은 '들'의 회원모임을 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나 괜찮은 시민인줄 알았는데-재난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란 글을 공동작성한 '들'의 소모임 "괜찮은 줄..." 팀 멤버와 다른 활동회원들 그리고 상임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풀뿌리토론 매뉴얼에 제시된 세 가지 질문들을 토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쫌 아니지 않나 싶었던” 질문에 대해 나온 이야기 중에 일단 이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미안하다 아이들아”라는 구호가 “우리 세대(기성세대)가 잘못해서 이 꼴이 됐다”며 자기들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얘기로 이어질 때 정작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안산 지역 학생들이 피해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황 속에 비학생 희생자들은 정당한 관심과 공감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슬픔과 상실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이들아 미안하다’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사회 감수성의 빈곤함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왔고요.
세월호 사고 당시 배 안의 학생들에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안타까워했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 잘 듣는(가만히 있는) 모범생 vs (어른 말 안 듣는) 문제아’라는 문제적 도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에 분노하면서도 “착한 애들은 다 죽고 담배 피러 나온 날라리 애들만 살았다”는 식으로 회자되는 것 속에 반영된, 이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호출되는 방식이 동등한 주체로서가 아니라 어른들한테 필요할 때만 근거로 동원된다는 점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를 둘러싼 담론에서도 발견된다고 짚어준 분이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을 향해 ‘자식 팔아’ 운동한다고 비판하는 보수세력들이 단원고 2학년 교실을 없애자고 말할 때는 정작 “새로 입학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식으로 ‘학생’을 끌어온다는 거죠. 청소년인권의 흐름이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이래서 어려운거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서 더 나이로 정당화되는 차별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순수하지 않아도 될 권리, 슬픔의 주인이 될 권리

청소년인권의 문제의식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로 먼저 언급된 것은 학생답지 않아도 될 권리, 순수하지 않아도 될 권리였습니다. “무고한 청소년들이 죽었다”는 표현이나 “체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죽었다”는 표현은 “미숙한 청소년”이란 인식과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순수하지 않아도 될 권리는 피해자답지 않아도 될 권리와도 연결되어 얘기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면 도리어 ‘꽃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피해자가 무기력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 그이의 말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지요. 이 ‘피해자다움’의 프레임은 기득권 세력이 잘 활용하는 논리이기도 한데, 이는 유가족들을 향한 “보상금을 노린 떼쟁이”라는 식의 낙인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평택 미군기지확장이전 반대 투쟁 당시 김지태 이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노리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가 이 땅에 흘린 땀과 시간의 무게를 정말로 계산할 수 있겠소?” 표현의 자유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 자유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다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답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하는 중에 나의 가난함(비참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연결되어 나왔는데요. 유가족들이 사고 이후 긴급구제를 받으려면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사고 와중에 진도를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사망 신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서류나 떼러 다닐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국가는 그 서류미비를 이유로 제때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 언급된 권리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보상금’이 아니라 ‘고통을 당한 후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권리’이고, 이 권리는 비단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생계 때문에 슬픔에 젖어있을 시간조차 뺏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론 얼마나 ‘슬픈지(비참한지)’를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부당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다음은 슬픔의 주인이 될 권리. “지겹다, 아직도 그 얘기냐”는 식으로 슬픔에 시간을 정하고 그만큼만 슬퍼하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 이 권리가 도출되었는데요. 누구는 내 일처럼 계속 눈물을 흘리는 데 반해 나는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건 아닐 때 내가 이상한 존재인 것인지, 분명 아픔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데도 “슬프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혹은 세월호 운동에서 발견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주의를 지적했을 때 “그럼 세월호 운동 하지 말라는 거야?”식으로 반응이 나올 때 등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토론을 했습니다. 각자 느끼는 슬픔의 깊이와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가령 “세월호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녀도 무력감에 파묻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는지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각자의 슬픔을 들여다보며 그 슬픔 너머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공감을 조직할 권리

‘내 자식이 죽었는데’식의 발언이 가족주의(보호주의)를 고민하는 이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이가 자신의 상처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면 슬픔을 표현할 다른 방식의 언어는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의 고민, 동시에 한편으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의 존엄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공감을 조직할 권리’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그 공감을 조직할 권리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모이고 말할 권리로 시작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요청할 권리, 말할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할 권리, 타자를 만날 권리 등까지를 포함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길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나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감수성이 깔린 사회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은 내가 상대의 존엄을 인정해줄 의무와 동시에 나도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할 권리의 쌍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이 사회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변화’란 단

어 자체는 가진 자들도 '국가 개조' 운운할 때처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니 더욱더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내용을 고민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16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길 바라는 것인지 인권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벼리고 행동의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

*사진1_독일 프랑크푸르트 부활절 평화 집회 때 세월호 피켓을 들고
*사진2_풀뿌리토론 함께한 '들' 사람들

[웹진8호]함께하는, 풀뿌리 연대(서연님 풀뿌리 토론 워크샵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0, 2015

416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워크샵 후기

장애여성공감 서연 활동가

* 이 글은 장애여성공감 웹소식지 11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2014년 4월 16일, 12시경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에 이상이 생겼지만, 전원구조 했다는 기사가 포털창에 올라왔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장애여성공감활동가들은 모여 앉아 점심식사를 했다. 그 후, 전원구조가 아니라는 속보들이 떴고, 사무실은 술렁였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것인지, 아까는 왜 전원구조라는 기사가 나온 것인지, 수학여행을 가던 배라서 학생들이 많다던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괜찮은 것인지' 잠깐 사이에 세월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후 일 년후에 활동가들은 시청광장에서 열린 4.16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덮어두기에 바쁜 공권력을 목격하였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떻게 꺼내놓아야 할지 어려웠던 장애여성공감은 10월 14일과 28일에 <416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한 416인권연대의 <풀뿌리토론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활동가들과 장애여성회원들은 1년이 넘었지만, 마음 속 에 정처없이 떠다니는 세월호 이야기를, 그리고 그 후 달라진 삶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였다.
10월 14일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활동가의 강의를 통하여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양 및 특별조사위의 진행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다. 세월호 사건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8일에는 친구사이의 기즈베 활동가의 이끔으로, 14일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모여 인권선언을 만들어보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커다란 종이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416인권선언을 하나씩 쌓아올렸다. (사진1)

공포감, 분노, 무력감

"바다라는 공간, 그리고 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공포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남의 일이야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정부가 취하는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첫마디는 공포와 분노였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 가장 큰 마음의 줄기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텔레비전과 언론매체를 통해 생중계로 바다에 위태위태하게 올라와 있는 배의 끄트머리를 우두커니 보고 있어야 했고, 미흡한 구조와 계속되는 책임회피로 인해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배의 끄트머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광경을 봐야만 했다. 무능한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술수에 분노했고, 그저 지켜봐야 하는 힘듦을 고스란히 느껴야만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게 참 기댈 데가 없다고 믿겨지는 것 같아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 보니까 움푹 파이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런 작은 구멍도 두려워하는데 바다에서 그런 배에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엘리베이터나 집에서 불이 나면 나도 죽지 않을까?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미리 애들부터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생각 더 많이 했어요."

그 후,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환기구 추락, 지하철 충돌, 중증장애인의 사망등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공간조차 믿을 수 없는 불안함은 어느새 보편적인 감정이 되었다.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재난발생시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비상대피로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상적인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사진2)

세월호 사건 이후 1년이 된 지난 4월 20일,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독립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세월호와 같은 재난 사건부터 장애여성의 경우 손쉽게 놓이는 일상적인 폭력의 사건'까지, 이와 같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의 의미와, '누구'의 안전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할 권리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우리에게 '안전하지 못함'이라는 두려움은 일상으로 침범해왔다. 어떤 시스템도 자신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은 덤으로 생겨났다. 세월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고, 세월호 전 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달라졌다. 공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당장 내일도 장담하기 어려웠졌다. 불안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회적 애도를 막는 사회
의문투성이인 세월호를 되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 손꼽아 보았다. 이야기를 시작하자 참여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권에서 제대로 된 상황파악이나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것.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와 그리고 계속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시늉만 하는 것."
"사람의 연령, 직업, 성별에 따라서 보상금 달랐잖아요. 사람간의 위계를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생존자에게) 너는 살았잖아 그러더라구요."
"생존자를 군대에 보낸 건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세월호 구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었다. 구조를 지체하는 사이 배는 더 침몰하였고, 구조활동의 빈틈을 거짓말과 자극적인 기사들 메우기 바빴고 무엇이 우선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와 상황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재난 시에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여 희생자를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나누었다. 그리고 교사라 하더라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정부에서는 사람의 개념을 수량으로 가치평가 판단하고 있음을,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다.

"경찰들이 최루액 쓰는 양이 세월호 가족한테 가장 많이 썼다고 하니까. "
"광화문에도 세월호 추모문화제 하는데, 지역경제 죽여놨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이 이미 끝난 일인 양 '이젠 그만 좀 하지'라는 여론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 정부의 문제적인 입장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의 무능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회적 애도를 막은 것이 커요. 진실을 밝혀야 고통을 제대로 보고, 정리를 해나가고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 일상을 가로막고 영원한 고통 속에 유가족을 남겨두는 모습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하나의 사고'로 마무리 하기위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유가족의 슬픔을 과잉으로 판단하며 진압하려고 하였다. 세월호 집회로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최루액을 쐈고, 높은 벽을 쌓아 거리를 원천봉쇄하였다.
이는 함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사건의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덮어버리려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충분한 애도의 시간마저 가질 새 없이 기본적인 것, 진실을 밝혀달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요구하며 시간을 버텼다.

(사진3)

"슬프고 죄책감이 오래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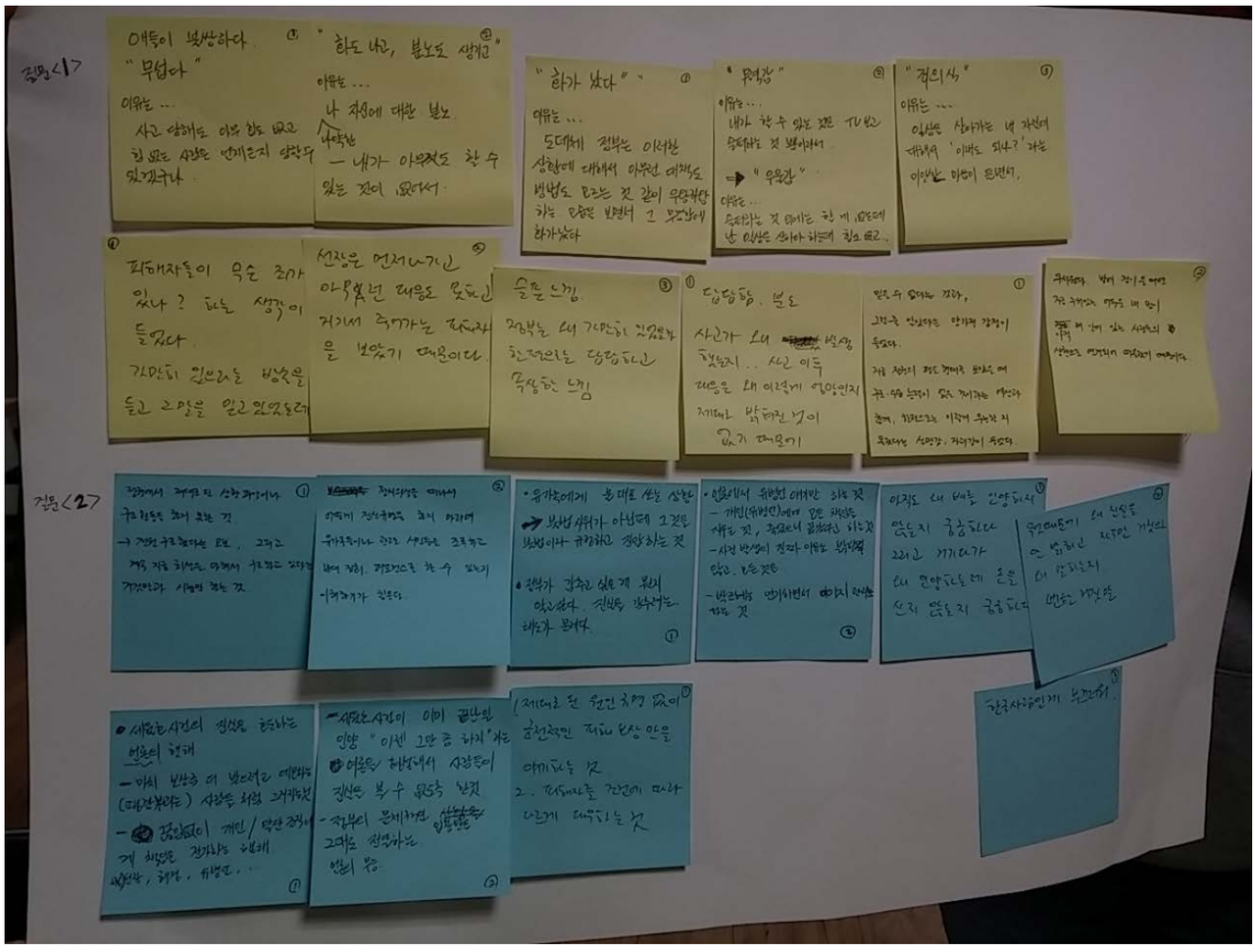
“일상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같이 슬퍼하는 과정조차도 미개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슬픔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에, 일상을 살아가는 스스로에게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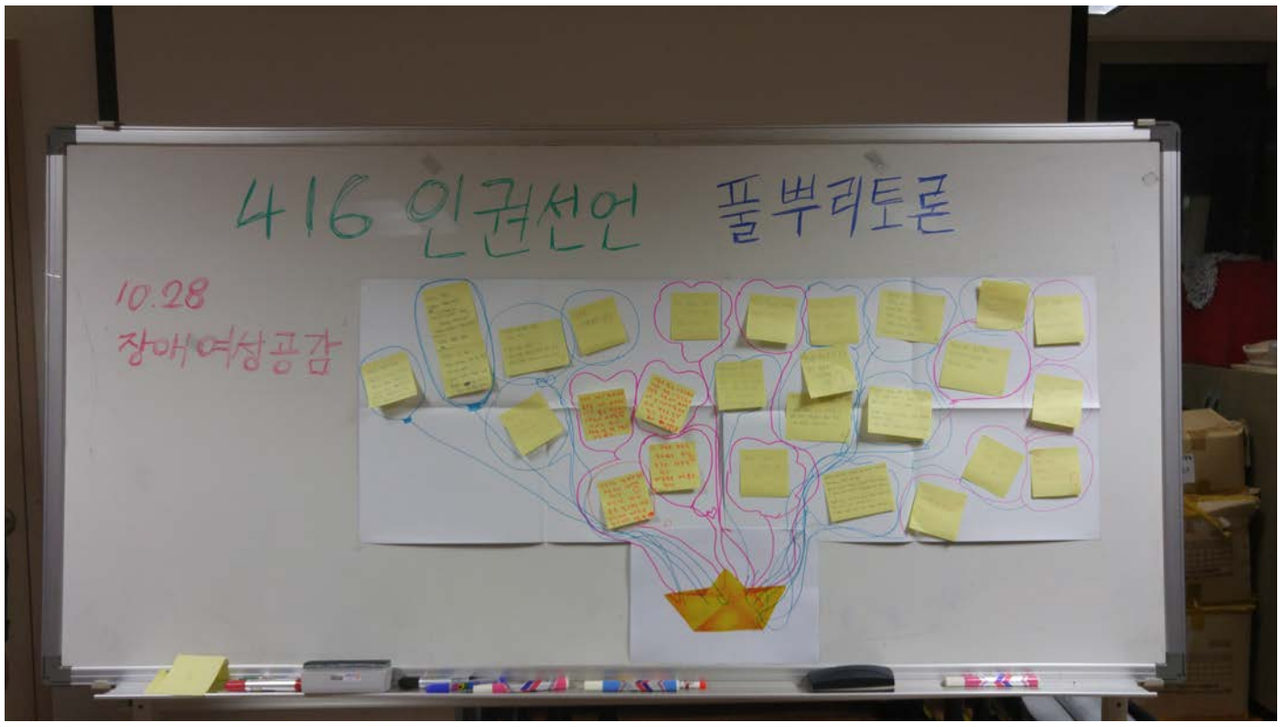
노란 포스트잇, 배 띄우는 풍선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된 워크샵을 통해 장애여성공감은 인권선언에 포함될 내용을 하나씩 포스트잇에 적어보았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 있는 우리가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나눠보았다.

시민과 아이들을 지킬 권리 / 안전할 권리
돈, 지위체계 등 모든 것에 우선하여 생명을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
진실을 알기위해 질문하고, 부당한 명령, 폭력에 거부할 권리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와 의지가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권리
기록하고 기억할 권리 / 기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권리
논의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일상적인 소통창구를 보장받을 권리
인권을 배울 권리
슬픔에 공감받고 공감할 권리

각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좀 더 알 수 있었다. 워크샵의 진행 속에서 우린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무력감과 죄책감을 넘어서, 우리의 슬픔이 혼자만의 감정이 아닌 모두의 슬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눠볼 수 있었다.
진행해주신 기즈베님의 말처럼 우리의 권리를 적은 노란 포스트잇은 풍선이 되어 배를 들어올릴 것이다. 416 인권선언은 장애여성공감이 참여한 워크샵처럼 곳곳의 풀뿌리 토론을 모아 진행되기에 서로 다른 위치, 다른 환경 속에서 닮은 마음을 모아 공통의 권리를 엮어내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시도에 다행을 느끼며, 장애여성공감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4, 5)




416 인권선언 플뿌리토론
10.28
장애여성공감

[웹진8호]추진단 인터뷰 22. 추진단 박은희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0, 2015

[웹진8호]추진단 인터뷰 22. 추진단 박은희님

1.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엄마입니다. 이름은 박은희 인데요, 박은희라는 이름보다 요즘엔 예은이 엄마란 얘기를 많이 듣고 아이 이름을 듣는 게 더 좋아요.

2. 4.16인권선언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합류를 하시게 됐나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한 말은 아니지만, 사람다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필요한 이야기

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부터 시작해서 거리로 나온 부모들이 가장 많이 느꼈던 분노 중에 하나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 거였어요. '생명에 관한 존엄성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걸 느꼈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먼저 경험한 저희들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 전체에 생명보다 돈이라는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304명이라는 목숨도 포길할 수 있게 만든 것이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선언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인간으로써 마땅히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싶어서 이 선언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 요즘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로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부모들이 교실문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주기 때부터였어요. 그 때는 졸업식 때까지만 존치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됐어요. 생존자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학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마음이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주기가 지나고 나서 교실을 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교실을 들어 갈 수도 없었어요. 교실을 들어갈 엄두가 안났어요. 교문 입구부터 시작해서 눈길 가는 곳마다 마음이 가는 거에요. 1주기 끝나고 처음 교실을 가서 봤는데, 시간이 그대로 멈춰져 있더라구요. 그냥 참사의 현장 그대로 이더라구요. 거기 가보면 시간도 4월 16일로 돌아가 있고, 아이들이 원래 있던 그 자리를 그대로 볼 수 있고, 아이들이 통째로 사라진 참사의 현장이 오롯이 다 느껴지더라구요. 우리가 직접 참사의 현장을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교실을 가서 보면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 장소에요. 참사의 현장을 남기는 가와 남기지 않는 가는 국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역사로부터 배우는 자와 배우지 못하는 자이 차이인 것 같고,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로 교육의 문제점도 드러난 거잖아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정형화시키고 획일화 시키고 가만히 있으라고 교육시켜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차라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다가 그랬으면 차라리 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부모의 말을, 선원들의 말을, 교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게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단원고 교실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해서 이전과는 달리 생기있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단원고에서는 아이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교육또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너무 화가나요. 304명의 목숨값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아요.

4. 단원고 존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방문하고 알려 주시는 거에요. 주말에만 개방이 되는데 오셔서 보시고 4.16 참사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눈으로 보셔야 해요.

5. 부모님들이 피케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청 앞에서 매일 3~7명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두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너무 조용해서 염려가 많이 돼요.

6. 4.16인권선언 추진단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답답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길을 만들어 갑시다.

[웹진8호]추진단 인터뷰 21. 추진단 박동호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0, 2015

[웹진8호]추진단 인터뷰 21. 추진단 박동호님

1. 본인 소개 부탁 드릴께요.

저는 박동호 신부라고 하고요. 천주교 신부입니다. 서울교구에 소속돼 있고, 신정동 성당에서 일하고 있고, 서울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서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 정의구현 사제단과 정의평화 위원회랑은 다른 건가요?

정의구현 사제단은 인권의 문제, 경제정의의 문제, 평화의 문제에서 뜻을 같이하는 신부님들이 임의로 때때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구요. 정의평화 위원회는 공식 교황청 산하에 있는 기구이고 각 교구마다 다 두게 돼있는 기구인데,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인권의 문제, 경제정의의 문제, 평화의 문제, 연대의 문제에 공식적으로 활동하도록 설치 돼 있는 기구입니다.

3. 성직자로써 세월호를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믿지 않는 분들이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성직자로서 저희는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터전이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세월호 사건은 그 믿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하느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느님 나라는 꿈도 꾸지 마라"라는 사인을 준 문제라고 느꼈어요. 세월호는 그 많은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가도록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한 거잖아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는 걸 학습 시킨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선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의 민낯이었다고 봐요. 신앙의 토대를 둔 성직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4. 4.16 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인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침해 받아서도 안되는 제일 소중한 가치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해야 될 제1의 임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교리 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권리가 생명권이에요. 그런데 세월호의 경우는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됐죠.

5. 4.16 인권선언이 진행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신부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4.16인권선언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는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엔 인권선언에 뜻이 있었다기 보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회의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4.16 인권선언이란 것은 소극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물건취급하려는 나쁜 것들 앞에서 사람은 돈이나 권력 앞에 휘둘리는 물건이 아고 그보다 차원 높은 무엇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떠났는데 이 아이를 살려낼 수는 없고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노력했다. 그래야 나중에 죽어서 만나더라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겠다고 하시며 움직이시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리고 세월호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고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4.16인권 선언을 남기는 것도 부모님들의 그런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이 돼요.

6. 앞으로 어떤 인권선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바램

세월호가 단순히 헤프닝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사회의 부재, 공동체성의 붕괴를 드러낸 문제라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야 훗날 미래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바로 잡으려고 했던 세대였다'라는 역사로라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4.16인권 선언이 하길 바래요.
세월호를 통해 인권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부터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인권 감수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래요. 세월호의 원인이 된 이 사회의 문제점이 또다시 생기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인권감수성으로 자생적으로 억누르고 정화시킬 수 있도록이요.

7. 추진단에게 한 말씀

첫째는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라는 회의감이 들곤 하는데, 그런 것은 저쪽 사람들이 바라는 바에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니까요.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신념의 신뢰를 가지고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신념의 목표는 사람의 소중함이란 것을 항상 염두 해두면서 가시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견이나 방법론 적인 차이들이 생길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제일 큰 가치인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웹진8호]추진단 인터뷰 23. 추진단 정경원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0, 2015

[웹진8호]추진단 인터뷰 23. 추진단 정경원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춘천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산사태 참사로 생을 마감한 인하대 1학년 최민하 엄마입니다. 하는 일은 노동자들의 기록을 수집, 전산화하고 역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기념사업회 일과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연락 책임자 일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을 때 남다른 마음이었을 것으로 짐작도 됩니다만,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겪었는지 들려주세요.

전원 구조라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믿고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씩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영상들을 못 봐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숨이 막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우리 아이 생각도 나고요. 우리 유족들은 참사를 딛고 사회에 적응하며 살고 싶어도 이런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한 거잖아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참사 이후 글이나 간담회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들을 만날 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엔 만나기가 두렵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광화문에 가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단원고 유족들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닿아 저희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얘기했어요. 우리 투쟁 끝나고 정리를 해보니 정부, 지자체, 정치인들이 참사에 대응하는 공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참사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안전가족협의회 분들 만나 이야기 나눠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저들은 처음에는 무한 애도를 표하다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뒤로 빼는 거죠. 언론까지 동원해서 유족들 가슴을 도려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갔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거죠.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참사의 진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조사도 요구하고 처벌도 요구하고 언론에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법적, 사회운동적 경험을 가진 이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요. 당시 유족들 중 많은 분들이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과정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역사와 기록에 관련된 일이라고 들었어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여전히 묘연하고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는데, 세월호 참사를 잘 기억하는 역사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진실이 묘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인 거죠. 다만 저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물증을 없애면서요. 유족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역사로 만들어야죠. 저들은 국가의 모든 기관과 힘을 동원해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겠죠.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기억을 둘러싼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되살리고, 남겨야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체들이 싸우지 않으면 역사에 남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4.16인권선언은 ㅇㅇㅇ이다."를 묻는다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확장이다. 참사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참사가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는 참사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도록 해왔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유족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바꿔나가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거죠.

4.16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시 함께 모이는 2차 전체회의는 어떤 자리가 되길 바라나요?

인권선언을 매개로 전국적으로 풀뿌리 토론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재난 참사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2차 전체 회의에서는 1차 토론의 결과들을 모아 인권선언을 확정하고 공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 또는 인권선언운동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권선언을 함께 추진하는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인권선언에 맞게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해야겠죠? 오래 걸릴지라도. 물론 제도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이 우리가 선언하는 내용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정치적 처벌을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거요. 뒤끝작렬.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답이 아님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겁니다.

[웹진8호]추진단 인터뷰 23. 추진단 박래군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1, 2015

1. 110일 동안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계셨습니다. 감옥 생활은 어떠셨나요?

- 제가 구속된 게 지난 7월 16일이었습니다. 구속 직후에는 계속 잠이 오고 몸이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한 달 가량은 운동에 중점을 두면서 체력과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하루 두 시간씩 땀을 내고 운동을 하니까 한 달 정도 있으니 몸이 좀 회복되더라고요. 쉼이 필요했던 시기였지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나 활동가들이 쉬지도 못하고 무리를 했는데,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걱정입니다. 저는 110일 동안 쉼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할 수 있었는데, 유가족들이나 활동가들이 그러지 못하니 걱정입니다.

그런 뒤에는 책 원고 쓸 준비도 하고, 틈틈이 그간의 활동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416운동도 구상해보기도 하면서 지냈지요. 사실 보석은 포기하고 있어서 12월 중순경 1심 재판이 끝날 때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갑자기 나오게 돼서 계획이 엉켜 버렸어요. 감옥 생활은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니까 답답했지요.

2. 상임운영위원을 검찰이 구속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검찰은 지난 4월의 집회와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저를 구속시켰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의 집회와 광화문 일대의 시위, 5월 1, 2일의 인사동

일대의 시위를 불법으로 몰고 그 책임자로 저를 지목해서 구속시켰지요.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될 텐데요, 제가 불법 시위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닌 데도 이를 공모했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항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건 표면상의 이유이고, 본질적으로 416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요. 올해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배보상을 시행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묻어버리고 싶어 했지요.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했고요. 아마 우리가 4월에 강력히 항의하지 않았으면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시민들을 분리하고 피해자 집단을 고립시키고 싶어 했지요. 아마도 저의 구속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시민들이 416연대로 순조롭게 결집하지 못하도록 막고, 416운동을 위축시키고 싶은 의도에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대규모로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하고, 벌금을 매기고 있지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416운동이 위축되지도 않을 겁니다. 여전히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나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고,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지요.

3. 보석으로 석방되어 나와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 아직은 적응기를 보내고 있어요. 적응기간이 예전에 감옥 다녀왔을 때보다 더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워낙 공백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더욱 열악해진 상황들 때문일 것 같고요. 일상생활로 복귀는 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으로 복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은 진행되는 게 있고, 제게 요구되는 일도 있지요. 가장 급한 건 12월 1일 인권콘서트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차차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복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석 중인 관계로 신변상의 불안정함도 있지요. 보석취소로 다시 수감되는 일도 막아야 하고,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416연대와 관련해서도 당장의 급한 일을 하려고 나서는 일보다는 좀 멀리 보면서 감옥에서 했던 구상들을 정리하고 주위 활동가들이나 가족들과 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의 역할을 찾고 싶고요. 감옥에서 쓰려고 했던 책 원고도 쓰면서 천천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4.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사회적으로 확인된 목표를 이루는 운동을 '416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요, 416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 416연대가 하는 운동이 416운동이지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목표는 현실에서 보이는 목표로 설정되었고, 당연히 잘 해야 하지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지요.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는 4월 16일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럼 4월 16일 이전은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도 따져 봐야 하지요. 정부는 국가대개조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빈 말일 뿐이지요. 이 정부는 거짓의 바벨탑만 쌓아 올리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는 이런 정치의 문제, 경제 시스템의 문제, 가치관과 문화의 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결과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경쟁이 우선시되는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국가를 바꾸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일을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확인했지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16운동은 정치를 바꾸는 운동이고,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이고,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지요. 그런 면에서 다른 현안들과도 연결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꾸준히 가야지요.

5. 구속되기 직전인 416연대가 6월28일 창립했고, 직후에 구속되어서 한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세월

호 참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416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나요?

- 416연대 활동가들이나 운영위원들, 상임운영위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위원회들이 구성되고 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난 500일 추모제 이후로 세월호 이슈가 현안에서 밀리는 감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큰 현안들이 정부에 의해서 터졌고, 그에 대응해야 하니까요. 이런 현안들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안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일은 계속 필요하겠고요. 416연대의 성공 여부는 자발적인 풀뿌리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일 텐데요, 아직까지 그런 연결은 매끄럽지 않아요. 각각의 지역의 네트워크들이 자주성으로 갖고 움직이면서 전체 방향에서 416운동의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이건 416연대의 앞으로의 조직적 과제입니다. 다른 중요 현안에 밀려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할 건 없어요. 오히려 416운동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고 이를 다양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요.

6. 416인권선언 제정운동이 진행되고 416운동과 관련해서 인권선언운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인권선언 제정운동이 어떻게 하면 힘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총체적으로 부정된 사건이지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집단적으로 목격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아팠고, 너무 슬펐고, 분노했던 거지요. 그런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참혹한 현실에 눈을 떴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416운동이고요, 여기서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었지요. 그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가 인권을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잡은 거고, 그게 지금 풀뿌리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지요. 인권은 이미 문서로 정리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끌어내서 재구성할 것을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생생한 언어로 풍부하게 재구성된 인권은 이전의 인권과는 다르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전문가가 강연하고, 문서로 정리해서 후딱 발표하는 것으로는 힘 있는 인권의 재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가 각자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인권을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토론과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권선언은 결국은 한 장의 선언문으로 결과되겠지만 의미는 무척 다르겠지요. 우리가 토론해서 합의하여 만든 인권선언이기 때문에 소중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해서 현실을 바꾸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겠지요. 지금 인권선언 제정운동이 그런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2008 인권선언'과 비교해서 416인권선언은 어떻게 다를까요?

-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었던 해이고, 그 해에는 광우병 촛불집회가 거대하게 타올랐던 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직접행동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세로운 인권선언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인권운동진영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게 반영되었지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의 인권선언을 보게 되면 그 선언도 잘 만들어졌어요. 416인권선언은 활동가들, 운동가들, 전문가들을 넘어서 시민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만드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선언이기보다는 보다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이해되고 정리된 선언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선언문이 나온다고 해도 이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거나 그 내용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선언이 아닌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베네수에라 국민들이 그들의 헌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학습을 하고, 그것을 들고 권리를 주장하듯이 우리도 그런 선언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제가 없는 동안에 자리를 416운동의 현장을 지키고 밀고 왔던 피해자들과 활동가들,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척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텐데요, 그 어려움을 함께 손잡고 이겨내온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가급적 복귀를 빨리 해서 416 인권선언운동에도 함께 하고, 416운동에서도 제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상황이 안 좋아서 지치기도 하겠지만, 멀리 보면서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인권오름 주간인권신문

발행일: 2016-12-07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죽은 이의 존엄에 관하여

아샤

트윗 좋아요 1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사회에서 죽음은 너무나도 쉽고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미디어에서 사건·사고로 혹은 자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과연 타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은 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 주었다. 아마도 참사를 발생시킨 많은 원인들이 켜켜이 쌓여갔던 시간들 그리고 참사의 순간과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려 했던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 모두를 덮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참사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흔이 남았다.
많은 이들이 2014년 4월 16일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중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주제가 있다. 바로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자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산 사람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의 인권 문제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운동의 권리 당사자가 부재하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당사자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끌어갈 만한 충분한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참사로 죽은 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진척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죽은 자를 과연 인권의 보유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데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주장들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인권의 보유자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죽은 자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문제는 그 논쟁과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죽은 자들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죽은 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결례를 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의 신체를 마구잡이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죽은 자들 역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하기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예를 다해 죽은 이들을 대할 책임이 주어진다.

▲출처: 4.16 가족협의회

그러나 참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존엄이 너무나도 쉽게 침해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월호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다뤄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생생하게 드러난다.

시신을 꺼내놓고 한꺼번에 시신을 내놓으면 복잡하니 순차적으로 몇 명씩 내놓는 듯했어. 처음 발견된 시신들은 갯벌, 기름 등이 몸에 묻은 채로 보여주어 누가 항의를 하니까. 얼굴 등에 갯벌 등을 닦아서 내 보내 시신 확인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구. (어0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시신은 바닥에 놓고 확인을 하래. 영안실 찬 바닥에 놓고 확인을 하래 나보고. 검사한테 반말하면서 욕을 했어요. 넌 부모도 없냐. 당신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땅에다가 놨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속이 뒤집어진 거죠.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위 사례들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그저 빨리 확인되어 빨리 처리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죽은 이들 자신이 그런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은 이는 가족이나 지인 등 살아있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었다고 해서 연결고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죽은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은 그들과 관계된 살아있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애도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다른 모든 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죽은 이들의 존엄성을 최대한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자의 인권과 결부된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죽은 이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논하기도 바쁜 마당에 무슨 죽은 사람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느냐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죽은 자, 특히 참사로 죽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역설적으로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일 것이다. 죽은 자의 존엄을 지켜주고 예를 다해 그 시신을 대하는 사회가 살아있는 자들의 인권을 소홀히 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죽은 이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이야기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아직 개념이나 방법 등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전무하다. 계속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죽은 이들의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피해 가족들의 고통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덧붙임 아샤 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참사 이후의 삶과 일상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가라앉은 세월호와 우리 삶, 함께 끌어올려요

[현장]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 원탁회의의 후기

15.10.28 11:53 l 최종 업데이트 15.10.28 11:53 l 최예륜(416act)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쫓겨난 적 있는 사람들, 쫓겨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모여 존엄과 안전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난한 이의 존엄과 안전, 416 인권선언 원탁회의

지난 14일, 인권재단 사람 대회의실에서 작은 토론이 열렸다. 좀처럼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주최의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 원탁회의'를 연 것이다.

2014년 4월 16일에 304명을 실은 채 가라앉는 세월호를 지켜보았던 우리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았다. 살면서 자신의 세계 전부가 내 동댕이쳐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바닥을 보았으므로 그 바닥을 둘러싼 울타리에 대한 강한 불신을 품고 있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실체를 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국가와 사회라는 테두리는 뻥 뚫린 구멍으로 존재했고,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는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4월 16일의 참사를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었다. 반 빈곤 운동이 매년 10월 17일에 빈곤 철폐의 날 투쟁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416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주어진 선언의 문구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원탁회의의 형태로 토론을 준비했다. 삶의 문제와 세월호를 함께 고민하는 416 인권선언운동의 정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 10월 14일,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가 주최한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 원탁회의' 모습

ⓒ 4.16연대

나의 존엄과 안전은?

살면서 겪은 존엄 박탈과 인권 침해 경험에 관해 묻고, 세월호 참사와 내 삶의 연관에 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존엄과 안전이 지켜지는 데 필요한 권리를 물었다.

성동공고 노점상 주성근씨는 지난 여름 성동구청이 발주한 용역에 의해 행정대집행 철거를 경험했다. 당시 본인의 모든 것인 매대와 물건이 구청 집게 차에 의해 박살 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10월 6일 성동공고 앞 세월호 촛불 문화제와 풀뿌리토론을 하면서, 침몰한 세월호와 박살 난 나의 매대가 같은 신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홈리스행동' 회원 김종언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를 잃고 건설일용직을 전전하다 거리생활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눈물지었다. 지난 10월 8일에는 홈리스행동 회원들이 함께 모여 416 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홈리스 당사자들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냈다.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자신들에게 사정없이 가해진 차가운 시선과 폭력의 경험들이 공통으로 있었고, 겨우 일어서려 했을 때 한계와 허점투성이인 사회복지 제도와 일자리 정책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사람들을 불안 속에서 떨게 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 속에서 이해했다.

최후의 주거지, 쪽방 주민의 현실도 다르지 않았다. 일방적인 강제퇴거에 맞서 싸워왔던 동자동 9-20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병택씨는 세입자의 거주권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던 서울시와 용산구 등의 잘못된 행정의 실체를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서 오랫동안 묵은 부정부패, 정부조직과 돈 많은 사업가의 결탁을 읽어낼 수 있었

다고 한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의 윤가브리엘씨는 올해 7월 국립의료기관을 정부가 '메르스 전용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던 에이즈 환자 11명이 쫓겨난 사례를 이야기했다. 특정 질환의 환자라고 해서 치명적인 질병이 창궐하는 때 대책 없이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정책을 비판했다. 바닷속에 빠진 세월호에 갇힌 304명을 눈 뜨고 구경만 한 정부, 모든 요양병원이 거부해 갈 곳 없어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에이즈 환자를 눈뜨고 구경만 하는 정부, 세월호 참사에 책임 안 지려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 거부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떠넘기기. 이 모든 상황이 한 맥락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복지제도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했다. 장애인들은 집안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곤 한다. 도움조차 청하지 못한 채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이 있었다. 세월호를 보면서 '국가라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불안과 생존의 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홍대에서 삼통치킨을 운영하는 맘상모 회원 이순애씨는 '골목 상권을 일궈온 것은 건물과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우리인데'라며 돌연 세입자를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과 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내가 살아갈 권리보다 건물주의 탐욕이 우선인 사회가 지금과 같은 임대차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에는 아직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아홉 명의 미수습자를 포함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친구들을 잃은 채 고3 수험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생존자들, 이사를 가던 짐,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잃는 등 삶의 전부가 망가져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수색과 구조활동에서 죽어간 잠수사, 막대한 피해를 호소할 길조차 없는 진도 어민 등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속절없이 가라앉은 세월호를 지켜본 우리는 이웃 죽음의 진실을 알고자 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법. 제도와 무지막지한 공권력, 피해 배·보상을 둘러싼 인격모독 속에서 참상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모두 피해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연루되어 버렸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다. 가라앉은 내 삶의 권리를 끌어올리는 일과 세월호의 진실을 끌어올리는 일은 다르지 않게 되었다.

가라앉은 우리의 권리를 함께 끌어올려요

▲ 원탁회의 참가자들이 함께 만든 권리의 배 모습

ⓒ 4.16연대

존엄·안전·인권. 빼앗기는 것이 일상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들이다. '그 누가 노점상을 하고 싶어 하느냐'는 가사처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수이되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

법과 제도는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었기에 무작정 싸우는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는 이들을 '떼잡이'라 불렀다. 몇 해 전 한 유명인사가 '노숙인은 수치심이 마비된 존재'라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수치심이란 어떤 수준 이상의 인간 생존 조건 위에서 갖춰질 수 있는 것이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생존을 위해 악다구니를 쓰고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 바닥에 내던져져 아무런 가림막 없이 밥을 먹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는 수치심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라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진은영 시인은 "우리의 연민은 정오의 그림자처럼 짧고, 우리의 수치심은 자정의 그림자처럼 길다"고 말했다. 그 수치심을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 표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품위의 범주는 이 사회가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해 도저히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행하는 저항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견제하기도 한다.

법과 제도를 제 맘대로 바꾼 이들에 대해서는 인심이 후하다. 또한 법과 제도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월호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늘리고 운항관리 업무 예산을 줄이고, 선박 회사의 책임을 줄이고, 과적을 묵인해 온 지난 시간 동안 세월호는 그토록 위험한 배가 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실은 무거운 배가 바다 위를 달리면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자연의 섭리마저 넘어선 탈선이 있었다. 탈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지키도록 강요되는 법과 제도를 누군가가 제멋대로 뜯어고치면서 이루어졌다. '수치심'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

는 것일까. 발 딛고 선 땅, 나를 둘러싼 울타리 그 모든 것이 의심되어야만 한다.

▲ 원탁회의 참가자들 모습

ⓒ 4.16연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 원탁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가라앉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와 나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한 요구를 함께 고민했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에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졌어도 발 딛고 일어설 땅이 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기에, 진도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고 세월호의 진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참가자는 세월호와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나의 권리, 당신의 권리, 인간으로서, 생명으로서의 우리의 권리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권선언'이 준비되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시민기자란?

덧붙이는 글 | 최예륜 시민기자는 4.16 인권선언 추진단이자 빈곤사회연대 소속입니다. 이날 원탁회의 자료는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인권선언 -> 풀뿌리토론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16 OhmyNews

OhmyNews

풀뿌리는 아직 기억한다, 4월 16일 세월호를... - 오마이뉴스

부천 풀뿌리토론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 4.16연대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부천역 근처에 자리 잡은 '부천연대' 사무실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운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의 가치와 권리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권리선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370여 명의 인권선언 추진단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전체 회의 이후 전국 각지에서 풀뿌리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풀뿌리토론은 세월호 부천대책위와 전교조 부천 중등지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에는 25명의 부천지역 시민들이 참여했고, 유가족인 성호 엄마 정혜숙씨도 함께했다. 정혜숙씨는 풀뿌리토론에 함께한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들이 너무 강하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불씨를 지켜주셔야 세월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세월호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강조했다.

풀뿌리토론, 시민과 학생은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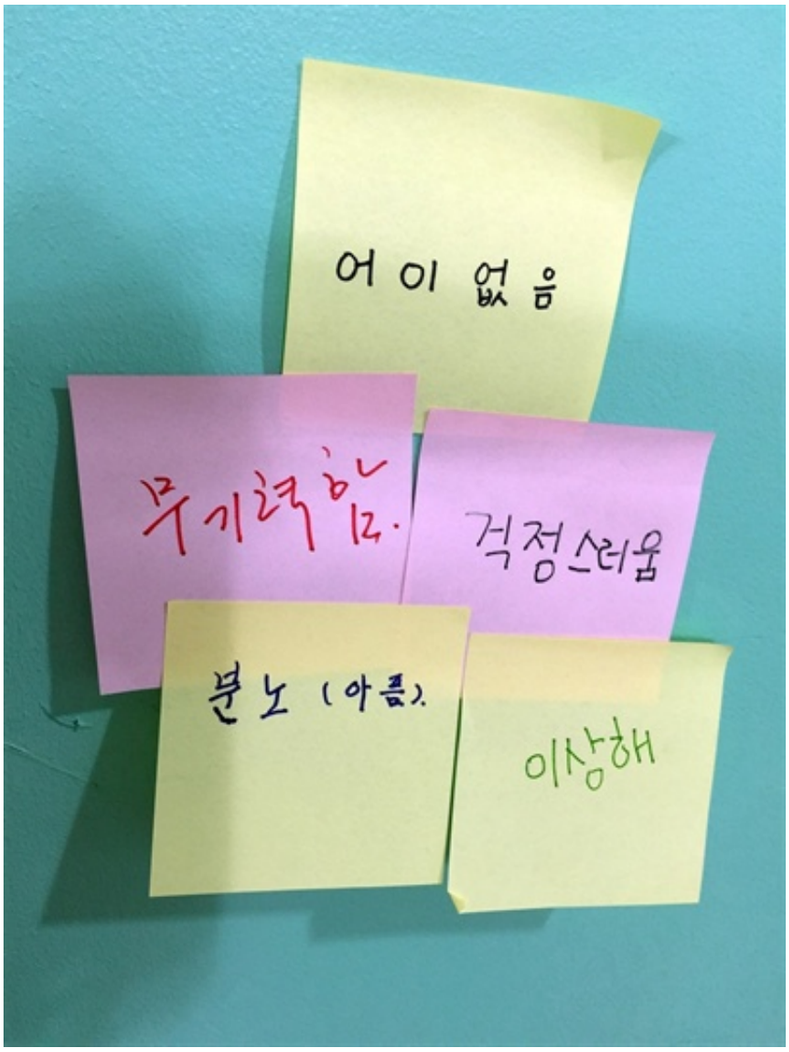
최근 쟁점이 되는 단원고 교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내년 1월 말에 아이들을 명예졸업 시키고 교실을 빼려고 한다. 교육감이 무력으로 교실을 빼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금이 벌써 10월인데 교실을 빼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히려 재학생 부모들과 유가족들의 싸움으로 맞불을 붙이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렇듯 교육청의 교육적이지 못한 모습에 화가 난다."

풀뿌리토론은 4개 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부천지역 풀뿌리토론에는 교복을 입고 참석한 10대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첫 번째 질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붙임쪽지에 '어이없음', '걱정스러움', '이상해', '분노', '무기력함' 등의 단어를 썼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용석씨는 참사 이후 두 달간 동료 교사들과 아무 말도 못 하고 술만 마셨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수업할 때 내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세월호 같았다"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한지수씨는 "사고 당시 음악 수업 중이었는데 선생님이 사고 관련 기사를 띄워줬다. 구조됐다고 해서 수업 듣던 친구들과 다 같이 '우와' 이랬다. 근데 그 뒤에 애들이 '거짓말이래', '에어포켓이 있어야 한대'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래 친구들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웠다"며 당시를 기억했다. 또 다른 고등학생 참석자는 "사고 소식을 학교에서 들었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언론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었고 화가 났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건 나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천 풀뿌리토론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 4.16연대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이 가장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나누었다. 참가자들의 붙임쪽지에는 '자유롭지 못한 추모', '그만 좀 해라', '언론', '국가가 국민을 무시' 등 다양한 단어가 적혔다.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 고등학생은 '학교생활'이라고 썼다.

"세월호 촛불집회에 참가하며 앞으로 뭔가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면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나조차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다. 집회에 다시 가려고 하면 시험도 겹치고 활동이 어려워졌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데 학교에서는 정작 참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1주기에도 교육청에서 추모 시간을 주라고 공문이 왔다는데 우리 학교는 그런 것도 없었다. 학교생활과 세월호 참사가 분리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선생님들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만 좀 해라'고 쓴 참석자는 "진실 밝혀달라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만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지역에서 목요일마다 촛불을 밝히는데 지나가던 시민 중 일부는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자유롭지 못한 추모'라고 쓴 고등학생은 '친오빠가 유가족들을 가리켜 '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

다. 그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녀서 중학교 친구들이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친구들이 나에게 언제까지 달고 다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야기 나누고, '읽기 운동'하고...

지난 16일에 진행된 부천지역 4.16 인권선언 풀뿌리토론에서 유가족 정혜숙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4.16연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러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도 바닷속에 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목록을 직접 써보는 시간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감시로부터의 해방', '진실을 알 권리',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 '국민 재판과 소환의 권리', '피해자가 존중받을 권리' 등 참석자 수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쓴 고등학생은 "사회시간에 헌법을 배웠다, 이게 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짜 평범할 사람들이 정치할 권리'를 쓴 참석자는 "한 명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하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 지금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어렵다, 선거 나가려면 돈도 몇 억씩 내야 한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당당한 권리'라고 쓴 참석자는 "밴드에서 동창들과 얘기하는데 세월호 집회 나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하더라, 사람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내가 힘든데 남의 힘든 것까지 짊어질 여유가 없는 거다, 그래도 당당하게 연대하자"고 했다.

토론에 함께한 전교조 부천 중등지회 지회장 이용석씨는 "청소년들도 세월호 관련해서 무언가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 1주기 즈음에 집회 등 있을 때는 학교에 못 있겠다고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많았다"라며, "4.16 인권선언 선언문이 나오면 학생들과 '읽기 운동'을 해보려고 한다, 선언문을 중학생용·고등학생용으로 만들어서 같이 읽는 것"이라고 앞으로 이어질 4.16 인권선언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날 부천지역에서 열린 풀뿌리토론은 참석자들이 직접 접은 종이배에 권리 목록을 쓰고, 네 모둠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마무리되었다.

[웹진8호] 4.16 인권선언 운동 활동일지(10월)

by 인권선언416 posted Nov 10, 2015

웹진 8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선언활동일지
10월

2015.09.12.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풀뿌리토론
@대방역 여성프라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회원들

2015.10.01. 현대정치철학연구회 풀뿌리토론
@서강대 하비에르관, 8명 참석

2015.10.06. 황학동 노점상 촛불 풀뿌리토론
@황학동 성동공고 후문 앞,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 흥인지부 회원들과 촛불문화제 참가자

2015.10.06. 운영팀 회의 5명 참석

2015.10.06. 미주 필라세사모 풀뿌리토론
@온라인 화상회의, 6명 참석

2015.10.08. 홈리스 야학 풀뿌리토론

@홈리스행동 야학 교실, 홈리스행동 야학 학생들과 교사

2015.10.08.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서울모임 풀뿌리토론
@참세상 회의장, 4명 참석

2015.10.10. 초안 작성을 위한 워크숍 진행

2015.10.12. 인권교육센터'들' 풀뿌리토론
@인권교육센터 '들' 사무실, '들' 회원

2015.10.12. 기획팀 회의 6명 참석

2015.10.13. 충북지역 풀뿌리토론
@행복카페, 11명 참석

2015.10.14.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 인권선언' 원탁회의
@인권재단 사람 대회의실, 1017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및 반빈곤운동 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2015.10.15. 점검팀 회의 4명 참석

2015.10.16. 부천지역 청소년과 함께 한 풀뿌리토론

2015.10.23. 충남아산지역 풀뿌리토론
@아산시 비정규지원센터 교육장, 9명 참석

2015.10.24. 인권운동사랑방 풀뿌리토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

2015.10.28. 장애여성공감 풀뿌리토론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와 회원

2015.10.29. 제천간디학교 풀뿌리토론
@제천간디학교, 58명 참석

2015.10.29.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세월호와 탈시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회원들

2015.11.06.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차 전원회의 16명 참석